광주시립미술관 '지역 작품 수장고'?

올해 구입 예정 80%가 지역 작가 작품… 관람객 부를 명작 없이 '나눠 먹기'

광주시립미술관이 미술관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장 미술품 구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속 작품은 기사와 무관함.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22일 2007년 소장 미술품 구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뚜렷한 기준 없이 지역 작가 위주로 작품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 작품 수장고'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 작가들의 창작 지원을 위해 미술품 구입비를 집중투입하는 바람에 수준높은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이나, 명품 구입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07년 소장 미술품 구입을 위해 22일 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부 공모와 내부추천을 거친 소장 대상작 100여점에 대해 최종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작품 구입 예산은 3억원.

그러나 시립미술관 학예실과 외부 공모를 거쳐 추천된 작품의 80% 가량이 지역 작가들 작품이어서 올해 작품 구입도 지역 미술인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도 구입작품 43점 가운데 80%에 달하는 34점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었으며, 전업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특정 작가군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컬렉션이 여느 갤러리에서나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보니 시립미술관이 개최하는 소장품전도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 미술관으로서

지역 작가 창작 지원에 편중…"검증된 작품·명품 구입해야"

열악한 지역 미술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지만 '선심성' 작품 구매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작품이나 미술사적으로 의미있는 명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처럼 학예사들의 개인 판단에 따라 구입작품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작위 추천이나 다름없는 외부 공모를 통해 소장품을 사들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1년 전에 미리 정한 미술관의 컬렉션 방침에 따라 학예사들로 구성된 작품 추천위원회에서 구입대상 작품을 엄선한 뒤 2단계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술품을 사들이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되게 미술품을 구입함으로써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미술품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컬렉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1, 2차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해 작품 평가나 구입의 공정성을 기하는 등 부정이나 잡음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장영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는 "미술품은 한 번 사들일 경우 미술관이 계속 소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원칙없이 작품을 구입할 경우 소장품은 방대하지만 그만큼 내실 없는 미술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두가지 빛깔 '라 보엠'

순천문예회관·빛소리오페라단, 순천·광주서 공연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은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 중 하나다.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꿈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라 보엠'은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의 끈끈한 우정과 가난한 시인 로돌프와 폐결핵을 앓는 처녀 미미의 비극으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가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준다.

유명 뮤지컬 '렌트'로 각색되기도 한 '라 보엠'은 특히 로돌프가 미미의 손을 녹여주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부르는 '그대의 찬손'과 여주인공 미미가 부르는 '내 이름은 미미' 등 주옥같은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늦가을 광주와 순천에서 오페라 '라 보엠'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먼저 테이프를 끊는 곳은 순천이다. 지방 중소 도시로는 드물게 해마다 오페라를 자체 제작해온 순천시는 '나비부인'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8번째 작품으로 '라 보엠'을 무대에 올린다. 21~24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 순천문예회관.

모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라 보엠'은 기존의 공연에서 볼 수 있는 무대 세트 대신 시대가 불분명한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색다른 무대가 눈에 띄는 작품이다.

주인공 미미역에는 이탈리아에서 활동중인 마르띠나 보르토로띠와 김승은·박선영씨가 트리플 캐스팅됐으며 로돌프역으로는 하만택·민경환씨가 출연한다. 그밖에 김동식·김기보씨 등이 출연하며 연출은 오페라 '나비부인' 등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극장에 입성한 바 있는 순천 출신 정갑균씨가 맡았다. 문의 061-749-3517.

매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사)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 광주대 교수)은 오는 27~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라 보엠'을 공연한다.

15번째 정기 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을 비롯, 빛소리 오페라단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미미역에 소프라노 김미옥·유형민, 로돌프 역에 테너 정중순·김회창씨가 출연하며 이환희·김혜미·마명준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이영기(계명대 교수)씨.

두 작품 모두 이일구씨의 지휘로 렘넌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27~2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빛소리오페라단의 '라 보엠'

달빛 교교한 월출산의 밤

김영자展 22~26일 무등갤러리

초승달이 여인의 눈썹같다. 달빛이 머물고 있는 월출산의 바위들은 흰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다. 달빛이 교교한 월출산의 밤은 온통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다.

사물의 본 모습보다 사물에게서 받은 느낌을 그리고 있는 김영자씨가 22~2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블루와 그린톤을 주조로 무등산과 꽃 등 자연생태를 깊고 따뜻한 색감으로 스케치하고 있다.

'무등산' '무등산Ⅱ' 등 작품들은 자연의 풍광을 카메라의 초점을 흐린 것처럼 흐릿하게 처리하는 대신 짙은 블루톤으로 마감함으로써 넉넉한 산의 마음을 담아 냈다.

'월출산'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전, 한국미술의 정신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전남 미술문화진흥회, 어등미술문화예술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늘솜 가야금 연주단 첫번째 정기연주회

20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늘솜 가야금 연주단〈사진〉의 첫번째 정기연주회 '희노애 Rock 愛惡欲'이 20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국악과 록이 함께 어우러진 퓨전 음악회로 임영대·이보미·박주연·김지혜 등 가야금 연주단 단원 이외에 이다정·김윤아·윤혜선 등 국악팀, 이사열·서의승·홍태희 등 밴드팀이 함께 공연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25현 가야금을 위한 愛', '끝없는 정열' 등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작품들로 김종헌·김연수·서의승·송정·박주연씨 등 모두 젊은 음악인들이 만든 창작곡이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결성된 늘솜 가야금 연주단은 지금까지 모난돌

거리 축제 공연, 무등골 프리마켓 자원 공연 등 작은 무대에 서왔으며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정기 공연을 마련했다. 문의 010-2630-9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 실은 노래 봉사단 자선 음악회

21일 KT 광주정보통신센터

사랑 실은 노래 봉사단(단장 김효중)이 준비한 자선 음악회 '2007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이 21일 오후 2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사랑 실은 노래 봉사단의 390회 정기공연이자 15주년 특집 무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승철·윤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현숙, 한혜진, 김용임, 조항조, 변진훈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 흥겨운 노래를 선사한다.

또 이카루스 댄싱팀과 밸리댄스 팀, 상무대 군악대가 함께 출연하며 귀일원 등 12개소에 600만원의 성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방송국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등 9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은 매월 한 차례씩 불우시설을 방문, 정기 공연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6억 5천만원에 이르는 물품과 성금을 지원했다. 문의 062-269-0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식 객(디지털/12세) 최고급관
2관	베오울프(디지털/15세)
3관	식객(12세)/베오울프(15세)
4관	로스트라이언즈(15세)/더 버터플라이(15세)
5관	색,계(18세)
6관	바르게살자(15세)/스카우트(12세)
7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15세)
8관	스카우트(12세)
9관	세븐 데이즈(18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블랙 달리아(18세)
2관	킹 덤(18세)
3관	스카우트(12세)
4관	궁녀(18세)/바르게살자(15세)
5관	식 객(12세)
6관	세브란스(18세)
7관	베오울프(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스카우트(12세)
2관	바르게 살자(15세)
3관	베오울프(15세)
4관	베오울프(15세)
5관	색, 계(18세)
6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15세)
7관	더 버터플라이(15세)/세븐데이즈(18세)
8관	로스트 라이언즈(15세)
9관	식 객(12세)
10관	세븐데이즈(18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스카우트(12세)
2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15세)
3관	식 객(12세)
4관	바르게살자(15세)/더 버터플라이(15세)
5관	로스트 라이언즈(15세)
6관	베오울프(15세)
7관	세븐 데이즈(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새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궁 녀(18세)
2관	바르게 살자(15세)
3관	베오울프(15세)
4관	스카우트(12세)
5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15세)
6관	식 객(12세)
7관	더 버터플라이(15세)/로스트 라이언즈(15세)
8관	색,계(18세)
9관	세븐데이즈(18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멤버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식 객(12세)
2관	세븐데이즈(18세)
3관	마을금고 연쇄습격사건(15세)
4관	스카우트(12세)
5관	색, 계(18세)
6관	바르게살자(15세)/로스트라이언즈(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